

<달밤체조 2015> 오디션 대본

## 민준기(남 31세 / 28-33세 지원 가능)

### S#134. 민수 사무실. 저녁.

승준 혼자 앉아 있다.  
준기 들어서며 아무도 없자...좀 의외다 싶은...민수 자리에 가 앉고...

승준 : (준기 쳐다보는...아까 그 검사가 아니네...)

준기 : (말없이 쳐다보는...)

승준 : (마주보는...)

준기 : 민 준기라고 합니다.

승준 : (누군지 알겠다) 아! 준희...

준기 : (덤덤하게) 네. 민 준희 동생입니다. 그리고 최 영인씨를 ...

승준 : (보는...)

준기 :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... 짝사랑하는 남자기도 합니다.

승준 : (보는) ...

준기 : 그 바람에 본의 아니게 달밤체조의 애청자기도 하고요.

승준 : (가만히 보는...)

준기 : PD님은 검사가 참 싫으신가 봅니다. 사냥개니 애완견이니 하면서 진행자가 집안에 키우는 개 부르듯 검찰을 부르던데요...아! PD님은 아닌데...진행자가 유독 검찰을 싫어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군요..

승준 : 어떤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에는 프로듀서의 색깔이 묻어나게 되죠. 진행자의 표현 역시도 그 색깔의 일부기도 하고요. 딱히 검사를 싫어한다기보다.. 정치적 검사들을 싫어합니다.

준기 : 15년 전 고 2때 그 사람을 처음 본 후...내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. 민 준기 삶의 주인이 최 영인이 되어버린 거죠. 그 사람을 얻는 방법으로 택한 직업이 검사였습니다.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검사가 되고나서 바로였구요. 그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데... 아시다시피..검사동일체의 원칙...어찌고 하는 게 검찰 조직 아니겠습니까?

그런데... 난 여전히 그 사람 밖에 모르고 삽니다. 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 길이 점점 멀어지고 아득해지는 데도 나는 그 길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나는 양 승준 PD가 부럽습니다. 미치도록 부럽습니다.

그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 역시 당신의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만... 난 당신이, 양 승준이라는 남자가 또 참 밉습니다.

(애써 분위기 바꾸고) 냇두리 한 번 해봤습니다. 누나랑 영인씨랑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지죠. (일어서는...)

승준 : 가야할 길은 가는 거죠. 험하고 멀고 아득하더라도 가야할 길이라면 가는 거죠. 우리가 길을 갈 때 꼭 도착을 목적으로 갑니까? 가지 않으면...갈 수 가 없으니까...가는 거죠. (일어서며) 보내주신다니까 가봐야겠습니다. 또 달 밤 체조하러....

준기 : (보는) .....

### S#9. 승준 아파트입구 + 영인 차

영인 차 유턴해서 떠나고...

떠나는 차 바라보는 승준. 그런 승준을 백미러로 보고 있는 영인.

(E) 휴대폰신호음.

휴대폰 받을 생각도 없이 백미러만 보는 영인. 돌아서서 걷는 승준의 모습이 백미러에서 사라지면....휴대폰 보고 한 뼨 통화 터치하는 영인.

영인 : 왜?

준기 : (F) 지금쯤 집에 도착했겠다 싶어서요.

영인 : 아직인데... 그리고 도착했다고 니가 전화할 이유는 먼데?

### S#10. 한강 둔치.

한강을 바라보며 준기 전화하고 있다.

준기 : 누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? 호전적이네?

영인 : (F) 오늘 안 좋은 일 지금 막 생겼지! 니 전화!!

#### S#11. 거리+ 영인 차

영인 : 먼 일인데?

준기 : (F) 나 지금 무지 좋은데 있거든요. 그래서 누나도 오면 어떨까 해서요.

(조심스레) 당연히..

영인 : 안 가지! (약간 궁금) 어딘데?

#### S#12. 한강둔치

준기 : 한강둔치요. 여의도쪽. 올래요? 모시러 가요?

영인 : (F) 모시러 가요? 할 거 같으면 올래요가 아니고 오실래요!

준기 : 그러게... 작가예다 방송 DJ시기까지한데.... (진지하게) 오실래요? 제가 모시러 갈까요?

영인 : (F)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머니?

준기 : 달밤..체조...?

#### S#13. 영인 오피스텔+ 영인 차

차가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.

영인 : 그래 둔치에서 체조나 하고 들어가! 마침 달 떴지?

#### S#14. 둔치.

준기: 달 떴죠.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. 달빛 있고요...바람소리 물소리 있고요.... (이미 전화 끊겼다. 준기 휴대폰 잠시 보다 손에 쥔 채 달 보는)

(CG) 달이 영인의 얼굴로.....휘영청...그 얼굴에서